

인삼 종자 생산 속도 4배 빨라져

농진청, 단축 기술 개발... 종자 1개서 1년 만에 40개 조작배양 모종 생산할 수 있어

우수한 인삼 품종의 현장 보급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인삼 종자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삼은 한 세대가 3~4년인 데다 식물체 1개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이 불과 40개 정도에 불과해 수를 늘려(증식)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기술은 종자를 대량으로 늘리는 조작배양 기술과 조직 배양체의 적응률(순화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기존의 조작배양 방법을 보완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신품종 종자 보급에 필요한 종자 생산 속

도를 4배가량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종자 안의 떡잎을 유도 배지에 올린 후 체세포 씨눈(배)이 많이 생기게끔 한 뒤 이를 다시 성숙 배지에 옮겨 씨눈 발달을 도왔다. 그리고 씨눈이 정상적으로 트도록 발아 배지로 옮겨 수개월 만에 0.5g 내외의 조작배양 모종을 생산했다.

유도 성숙 발아 등 배양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과장별 최적 배지의 조건과 배양액을 확립한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다.

그 결과, 식물체 1개에서 1년 만에 40개의 조작배양 모종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조작배양 모종은 흙에 옮겨 심었을 때도 생존율이 70% 이상



인삼우수품종 고원의 잎부분

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전했다. 앞으로 연류에 강하고 뿌리 모양이 우수한

‘천량’, 점무늬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고원’ 등 자체 개발한 우수 품종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업체에 맡겨 빠르게 보급할 계획이다.

인삼은 농가 대부분이 재래종을 재배하고 직접 씨를 받아 심으면서 품질 균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기후변화 등 재배 환경에 취약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미경호 과장은 “앞으로 조작배양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품종을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나아가 경쟁력 향상으로 고령 인삼의 명성을 잇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북전주농협은 지난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 조합원에게 명절 준비에 필요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조합원 가정에 행운 함께하길”

북전주농협, 설 명절 맞아 전 조합원에 선물꾸러미 전달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 조합원에게 명절 준비에 필요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선물꾸러미는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물엿, 맛술, 당면, 식용유, 진간장 등 총 8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조합원인 경우는 1명에게는 잡곡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북전주농협은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쌀, 참쌀, 잡곡, 선물꾸러미 등을 택배를 통해 전달해 왔었다. 작년 추석부터는 시내나 관외지역은 택배를 이용하고, 영농회가 구성된 지역의 경우는 청년조합원이 중심이

된 청년지기 회원들이 집집마다 전달한다.

이로써 농협과 청년조합원의 협력증진을 물론 청년 조합원과 장년 조합원간의 소통, 청년 조합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임직원의 정성을 담아 조합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 양어 승인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지역 26개 마을에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의 양어를 승인하였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어 승인으로 산촌 주민들이 4월 15일까지 고로쇠수액 약 16만리터 등을 채취하게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어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에서 산물에 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참여

건협 전북, 국회 본관 앞 17개 단체·중기 대표들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건설업계 17개 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에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호소문을 전달하였으며 건설업계를 포함한 3,500여명의 중소기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법안 유예 촉구를 외쳤다.

소재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27자로 50미만 영세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다. 도내 소규모 건설업체가 모두 적용되면서 경영자들이 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건설업계 17개 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참여했다.

순간에 잠재적 범법자가 된 모양새다. 처벌위주의 법률 시행보다는 시정조치와 교육을 시행하여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21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기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한전 김제전력지사, ‘설 맞이 이웃 사랑’ 선물 전달

한국전력 김제전력지사(지사장 김운섭)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30일 김제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 100분에게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김세트)을 전달했다.

김제전력지사 사회봉사단은 매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 기부로 조성되는 러브펀드 기금을 통해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김 선물세트(100만원 상당)를 준비하였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종수 노조위원장은 “추운 겨울에 찾아오는 설 명절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을 준비했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물을 기증받은 김제사회복지관 정훈 관장은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국전력 김제전력지사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한국전력 김제전력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30일 지역 어르신 100분에게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 김세트를 전달했다.

“전문건설업, 한단계 더 도약”

전건협 전북,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30일 전주 라한호텔 1층 온고을홀에서 대표회원 및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정기총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김성주 국회의원, 정운현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과 도내 건설관련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임근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도내 전문건설인 가족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다.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시·도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투쟁하여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2억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확대해 낸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성과이다. 2024년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39회 정기총회 를 개최했다.

회원사의 마음과 힘을 결집해 전문건설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전문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를 포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회 중 우수도회로 선정, 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